

제주 연고 19명 아시안게임 ‘금’ 도전

제20회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사격 오예진·유도 이현지·다이빙 이예주 기대
탁구 신유빈과 수영 이주호·이호준도 메달 사냥

제주 연고 국가대표 19명이 태극마크를 달고 다음달 19일 개막하는 제20회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그동안 제주를 대표해온 주요 선수들이 대거 국가대표에 포함되며 무대기 메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주요 종목별 제주 연고 선수를 보면 ▷레슬링 이민호(제주도청) ▷배드민턴 전혁진(제주도청) ▷사격 오예진(IBK기업은행) ▷수영 경영 이주호(서귀포시청)·이호준(제주시청)·안세현(제주시청) ▷수영 다이빙 김영남·김영택·문나운(이상 제주도청)·이예주(남녕고) ▷양궁 컴파운드 최웅배·김종호(이상 현대제철) ▷유도 이현지(용인대)·신유나(제주도청) ▷주

짓수 송태무(구월동주짓수 리라집) ▷탁구 신유빈·이은혜·박가현(대한항공) ▷태권도 강상현(울산광역시체육회) 등이 출전한다.

사격에서는 지난 2024 파리올림픽에서 제주 최초로 개인종목 금메달을 안겨준 사격 여제 오예진이 아시아 정상에 도전한다.

총 7명이 출전하는 수영의 경우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만 총 4개(은2, 동2)의 메달을 획득한 이주호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3개(금1, 은1, 동1)의 메달을 획득한 이호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획득한 안세현이 경영 종목에 출전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이빙은 4회 연속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김영남(제주도청)과 2회



사격 오예진



유도 이현지



다이빙 이예주



수영 이주호

연속 출전하는 김영택(제주도청)이 문나운(제주도청), 이예주(남녕고)와 제주 다이빙의 저력을 국제 무대에서 선보인다.

김영남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싱크로 10m플랫폼 은메달,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은메달,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특히 아시안게임에 첫 출전하는 이예주는 지난 2025년 전국체육대회에서 10년 만에 4관왕에 등극하며 국내외 대회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를지 기대된다.

탁구에서는 신유빈을 비롯해 이은혜와 박가현이 출전하며, 유도에서는 제주도청 소속 신유나와 용인대 이현지가 대한민국 대표로 나선다. 또 양궁 컴파운드에서는 최웅배와 김종호가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한편 제20회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아경기대회는 오는 9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16일간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43개 종목에서 총 468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으며, 경기는 일본 아이치현 내 19개 시를 비롯해 도쿄도, 오사카부, 시즈오카현, 기후현 등에서 펼쳐진다.



여자 비키니 정상에 오른 최유진



남자 피지크 정상에 오른 최웅배

2026 IFBB 세계·아시아선수권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최유진 비키니·최웅배 피지크 ‘정상’

최유진과 최웅배(제주특별자치도 보디빌딩협회)가 2026 IFBB 세계 선수권대회 및 아시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지난 15일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여자 비키니 -169cm급에서 최유진이 1위를 차지했으며, 여자 피지크 오픈에서는 박선연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남자 피지크 -170cm급에서 박은우가 1위, 최성배가 2위를 차지했으며, -173cm급에서는 최성배 선수의 쌍둥이 형제인 최웅배가 1위에 올랐다.

이어 진행된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도 제주 선수들의 활약이 계속됐다.

남자 피지크 -170cm급에서 최성배와 박은우가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며, -173cm급에서는 앞서 아시아선수권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던 최웅배가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르며 해당 체급

최강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여자 비키니 -172cm급에서는 최유진이 1위를 차지했으며, 여자 피지크 오픈에서는 박선연 선수가 2위에 오르며 2차 선발전에서도 국가대표 선발 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2026 Mr.& Ms. 코리아 선발대회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보디빌딩협회 소속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졌다.

남자 피지크 -173cm급에 출전한 최웅배는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 이어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하며 해당 체급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여자 비키니 +164cm급에서는 최유진이 2위를 기록했다.

또한 김경복은 보디빌딩 -80kg급에서 3위, 클래식보디빌딩 -180cm급에서 5위를 차지했으며, 이송배와 박은우가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며, -162cm급, 김인수는 클래식보디빌딩 -168cm급에 각각 처음 출전해 나란히 5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한국 U-18 농구대표팀 일본 꺾고 8강행

21일 바레인 vs 대만 승자와 아시아컵 대결

대한민국 18세 이하(U-18) 남자 농구대표팀이 짜릿한 한일전 승리와 함께 조 1위로 8강 무대에 안착했다.

한국 U-18 대표팀은 18일(한국 시간) 인도 아메다바드 비르 사바르카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농구연맹(FIBA) U-18 아시아컵 D조 예선 최종 3차전에서 점전 끝에 일본을 67-64로 꺾었다.

앞서 1차전에서 카자흐스탄(95-68 승), 2차전에서 인도(90-61 승)를 물리친 데 이어 일본까지 잡은 한국은 조별리그 3전 전승을 기록, D조 선두를 확정하며 8강 토너먼트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조별리그를 전승으로 기분 좋게 마친 한국은 21일 바레인-대만 전 승자와 8강 맞대결을 펼친다.

조별리그 내내 공수를 넘나들며

맹활약한 윤지훈은 경기 후 대한민국 농구협회를 통해 “스스로 팀의 핵심이라는 생각으로 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다른 선수들보다 경험이 많은 만큼 코트 위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승리 소감을 전했다.

신종석 감독 역시 조별리그 3연승의 원동력으로 선수들의 적극성을 꼽았다.

신 감독은 “선수들이 위축되지 않고 자신 있는 플레이와 유기적인 빠른 공격(얼리 오펜스)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점이 특히 긍정적이었다”고 조별리그를 총평했다.

이어 “다만 슛 성공률이 다소 떨어진 부분은 아쉽다”며 “드러난 문제점을 잘 보완해 다가오는 8강전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일본에 역전승을 거둔 뒤 환호하고 있는 U-18 남자 농구대표팀.

FIBA 홈페이지

9~10월 축구 A매치 4경기 개최 장소 확정

오는 9~10월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기간에 임시 감독 체제로 치를 축구 대표팀의 친선경기 개최 장소가 모두 정해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8일 “9월과 10월 국내에서 개최되는 하나는 행 초정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4경기는 수원, 서울, 울산, 용인에 서 차례대로 열린다”고 밝혔다.

대표팀은 먼저 추석 전날인 9월

2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에콰도르와 맞붙는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우리나라 대표팀이 치르는 첫 경기다.

이어 9월 28일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대결한다.

이후 10월에는 2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베네수엘라를 상대하고, 6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과 격돌한다. 연합뉴스



고 평 기

승  진

치 안 정 감

치안정감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경찰청 경찰발전협의회 회원 일동